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자영업 변화 특징

이글 책임연구원(glee@bnkfg.com)
백충기 연구위원(cgbaek@bnkfg.com)

동남권 자영업자는 2019년 86만 1천명에서 2021년 88만 7천명으로 2만 6천명 늘어나며 3.0%의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이후 지역 주력 제조업황 부진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로 인해 임금근로자 중 상당수가 자영업 시장으로 신규진입 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업종별로는 통신판매업, 커피음료점, 펜션 등이 증가했다. 비대면 기초 강화에 따른 전자상거래 활성화, 포장 및 배달 수요 증가, 비대면 공간 선호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간이주점, 호프전문점, PC방 등은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고령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졌다. 이와함께 영세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빠르게 늘어났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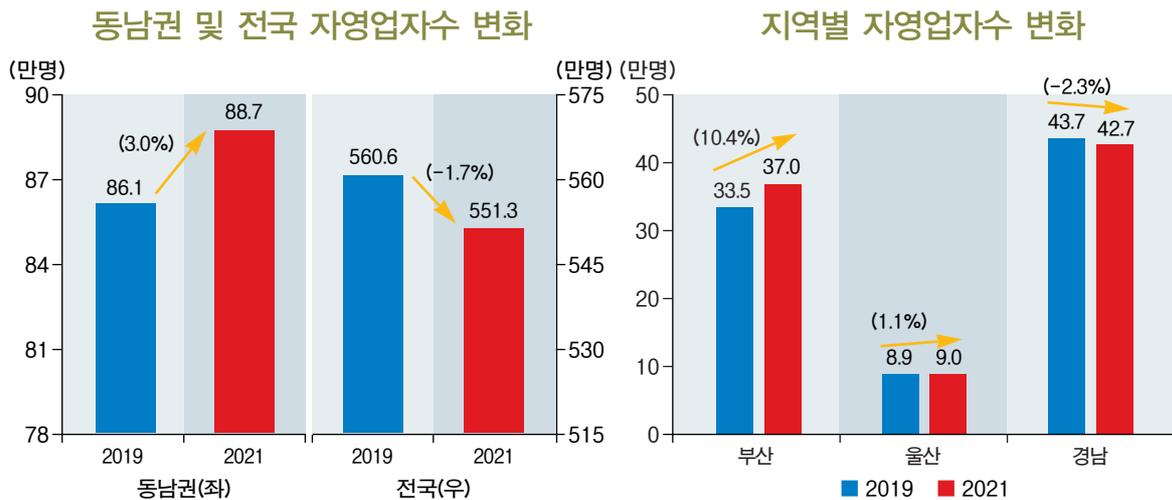
올해는 소비심리 개선, 지역관광 활성화 등으로 대면 서비스업 중심의 자영업 회복세가 기대된다. 다만 금융지원 축소, 금리인상 및 인플레이션, 원가부담 확대 등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동남권 자영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 지자체, 지역기업 등이 모두 관심을 높이고 지원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남권 자영업자, 코로나19 이후 2만 6천명 증가

동남권 자영업자는 2019년 86만 1천명에서 2021년 88만 7천명으로 2만 6천명 늘어나며 3.0%의 증가세를 보였다¹⁾. 같은기간 전국은 560만 6천명에서 551만 3천명으로 9만 3천명 줄어들며 -1.7%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부산과 울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²⁾. 부산은 2019년 33만 5천명에서 2021년 37만명으로 3만 5천명 늘어나며 10.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시도중에서 가장 높은 뿐만 아니라 유일한 두 자릿수 증가세이다. 울산은 8만 9천명에서 9만명으로 1천명 늘어나며 1.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의 경우 부산, 울산과 달리 동남권 지역중 유일하게 자영업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43만 7천명에서 2021년 42만 7천명으로 1만명 감소했으며 감소율은 -2.3%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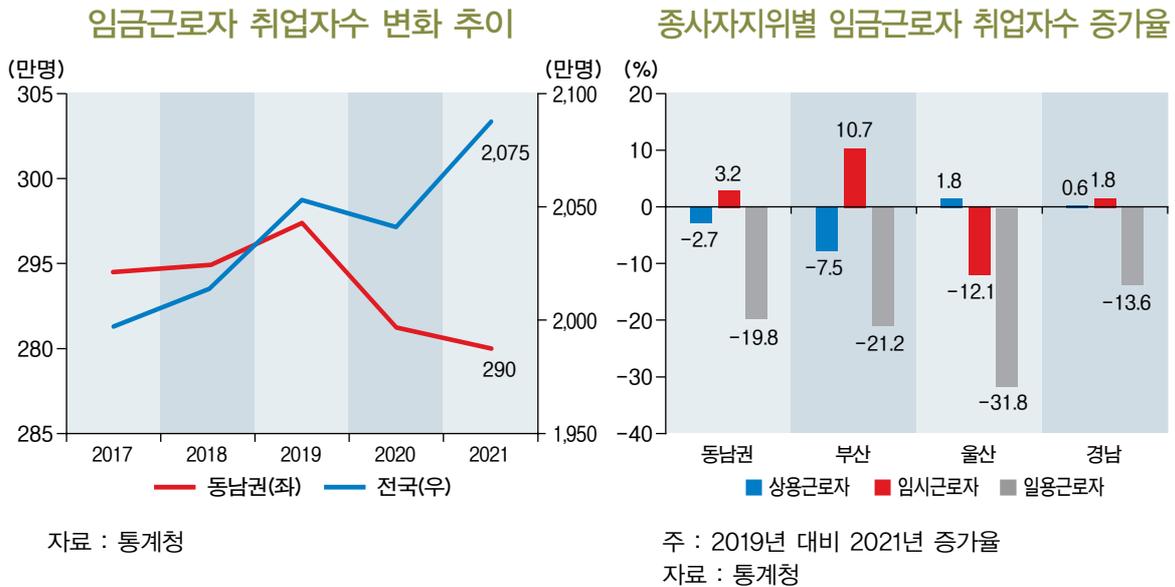
주 : ()내는 2019년 대비 2021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1) 2019~21년중 경제권역별 자영업자수 증가율(%)
 · 호남권(5.4), 동남권(3.0), 충청권(-1.8), 수도권(-4.0), 대경권(-4.5), 강원·제주권(-5.0)
 2) 2019~21년중 시도별 자영업자수 증가율(%)
 · 증가 지역 : 부산(10.4), 세종(7.7), 전북(6.6), 전남(5.7), 광주(2.8), 울산(1.1), 서울(0.1), 경북(0.0)
 · 감소 지역 : 대구(-11.0), 경기(-6.5), 강원(-5.8), 인천(-4.4), 제주(-3.6), 충남(-3.4), 경남(-2.3), 충북(-1.5), 대전(-0.7)

동남권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후 증가³⁾한 것은 지역 임금근로자중 상당수가 자영업 시장으로 신규진입 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⁴⁾. 2019~21년중 동남권 임금근로자수는 7만명 줄었으며 같은기간 감소율은 -2.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⁵⁾.

임금근로자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지역 주력 제조업황 부진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가 지목된다. 2019~21년중 동남권 자동차 및 조선 산업 취업자수는 코로나19에 따른 생산 차질, 수요 감소 등으로 각각 -9.5%, -13.3% 줄었다⁶⁾. 같은기간 전국의 경우 전자산업 취업자수가 2.7% 늘어나며 임금근로자수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종사자지위별 임금근로자 변화를 살펴보면 상용 및 임시근로자 보다는 취약 계층인 일용근로자 중심으로 감소했다⁷⁾. 2019~21년중 울산(-31.8%)의 일용근로자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부산(-21.2%), 경남(-13.6%)도 두 자릿수의 높은 감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⁸⁾.



3) 동남권 지역에서 경남은 부산, 울산과 달리 자영업자가 감소했는데 이는 제조 및 건설업 관련 도소매, 운수·창고, 기타서비스 부문 등 비생활업종의 자영업자가 줄어든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

4) 동남권 임금근로자수는 297만명에서 290만명으로 7만명(-2.5%) 감소한 반면 같은기간 전국의 임금근로자수는 2,044만명에서 2,075만명으로 31만명(1.5%) 늘어난 것으로 조사

5) 2019~21년중 임금근로자수 증가율(%)
· 경제권역별 : 충청권 2.7, 수도권 2.6, 대경권 1.9, 호남권 -0.7, 동남권 -2.5
· 동남권 시도별 : 부산 -4.7, 울산 -3.0, 경남 0.0

6) 동남권 주력산업 취업자수 증가율은 2021년 하반기 평균 대비 2019년 하반기 평균 수치를 활용

7) 종사자지위별 임금근로자는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임시근로자, 1개월 미만인 경우 일용근로자로 분류

8) 2019~21년중 전국 종사자지위별 임금근로자 증가율(%)
· 상용근로자(4.7), 임시근로자(-3.4), 일용근로자(-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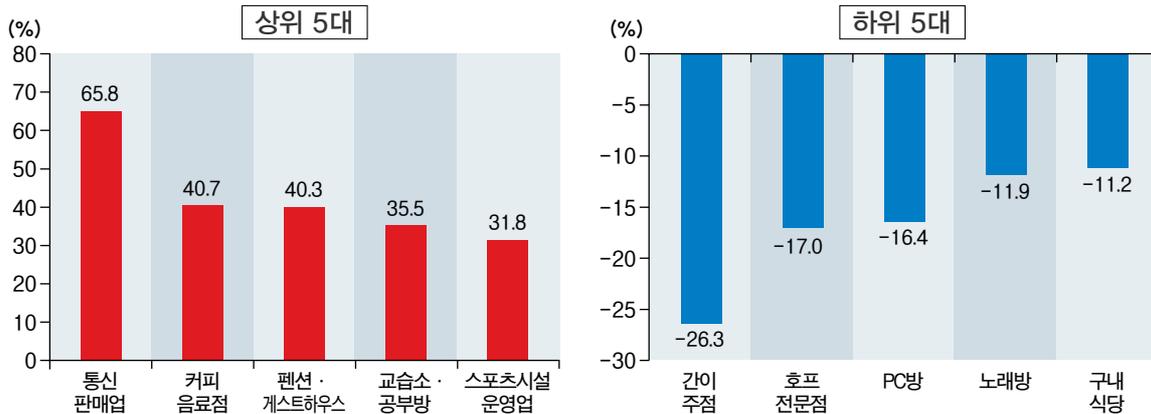
통신판매업, 커피음료점, 펜션·게스트하우스 증가하고 간이주점, 호프전문점, PC방 감소

동남권 주요 업종별⁹⁾로는 통신판매업 사업자수가 2019년~21년중 27,417명에서 45,467명으로 65.8%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세를 시현했다. 비대면 기조 강화에 따른 인터넷쇼핑,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가 크게 활성화된 데 주로 기인한다.

다음으로 커피음료점, 펜션·게스트하우스가 각각 40.7%와 40.3%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포장 및 배달 수요 증가, 비대면 공간 선호 현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교습소·공부방, 스포츠시설운영업 등이 각각 35.5%, 31.8%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직장 회식문화 변화 등의 영향으로 간이주점(-26.3%), 호프전문점(-17.0%), PC방(-16.4%)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대면 접촉 기피 등으로 인해 노래방, 구내식당 등도 각각 -11.9%와 -11.2%의 감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¹⁰⁾.

동남권 주요 생활업종 사업자수 증가율



주 : 100대 생활업종의 2019년 대비 2021년 사업자수 증가율
 자료 : 국세청

9) 국세청의 100대 생활업종 기준. 본 기준에는 개인사업자 외 법인사업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개인사업자 비중이 80~90%에 달하고 있어 자영업 사업자수 동향 파악에 용이

10) 지역별 증가율 상위 5대 생활업종

순위	상위 5대			하위 5대		
	부산	울산	경남	부산	울산	경남
1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간이주점	간이주점	간이주점
2	커피음료점	교습소·공부방	펜션·게스트하우스	호프전문점	PC방	호프전문점
3	펜션·게스트하우스	중고차판매점	커피음료점	PC방	호프전문점	PC방
4	스포츠시설운영업	커피음료점	교습소·공부방	노래방	신발가게	구내식당
5	헬스클럽	피부관리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	노래방	노래방

[참고] 2019~21년중 동남권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수 증가율

(%)

[증가업종]						[감소업종]	
업종명	증가율	업종명	증가율	업종명	증가율	업종명	증가율
통신판매업	65.8	변호사	10.2	동물병원	3.7	간이주점	-26.3
커피음료점	40.7	장난감가게	9.5	기타일반의원	3.4	호프전문점	-17.0
펜션·게스트하우스	40.3	기타외국식전문점	9.3	치과병원의원	3.0	PC방	-16.4
교습공부방	35.5	중고차판매점	8.8	분식점	2.9	노래방	-11.9
스포츠시설운영업	31.8	사진촬영업	8.7	예술학원	2.5	구내식당	-11.2
피부관리업	27.9	정육점	7.9	교습학원	2.5	담배가게	-9.1
헬스클럽	26.7	부동산중개업	7.7	서점	2.4	예식장	-8.8
기술및직업훈련학원	25.9	이륜자동차판매점	7.4	컴퓨터판매점	2.3	실외골프연습장	-7.4
실내장식가게	23.2	세탁소	7.3	침구커튼가게	2.0	여행사	-6.6
공인노무사	21.1	중식전문점	7.2	안과의원	1.7	여관·모텔	-6.0
채소가게	19.1	과일가게	6.4	한방병원한의원	1.6	슈퍼마켓	-5.9
제과점	17.9	기술사	6.2	산부인과의원	1.5	당구장	-5.7
패스트푸드점	17.0	자동차수리점	6.0	철물점	1.5	신발가게	-5.3
감정평가사	16.6	미용실	5.9	내과소아과의원	0.8	목욕탕	-5.1
가전제품수리점	16.1	성형외과의원	5.7	의료용품가게	0.7	기타음식점	-4.8
실내스크린골프점	15.4	건강보조식품가게	5.6	시계귀금속점	0.7	식료품가게	-4.4
스포츠교육기관	13.1	세무사	5.2	간판광고물업	0.3	옷가게	-2.9
신경정신과의원	12.9	한식전문점	4.8	가전제품판매점	0.3	문구점	-2.2
편의점	12.7	독서실	4.8	휴대폰가게	0.2	가구점	-2.2
꽃가게	12.6	일반외과의원	4.7	자전거판매점	0.2	스포츠용품점	-1.5
주차장운영업	11.1	이발소	4.5	종합병원	0.2	주유소	-0.9
생선가게	11.1	약국	4.1	LPG충전소	0.2	이비인후과의원	-0.8
일식전문점	10.8	법무사	4.1			안경점	-0.6
변리사	10.7	공인회계사	4.0			화장품가게	-0.6
건축사	10.6	건어물가게	3.9			결혼상담소	-0.1
애완용품점	10.4	피부비뇨기과의원	3.9			곡물가게	-0.1

주 : 2019년 대비 2021년 사업자수 증가율

자료 : 국세청

60대 이상 고령 자영업자 비중 확대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고령 자영업자 비중¹¹⁾이 2019년 28.4%에서 2021년 31.6%까지 높아지면서 고령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경제권역으로의 특징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¹²⁾. 같은기간 전국은 27.6%에서 30.3%로 2.7%p 상승했다.

동남권은 60대 이상을 제외하면 모든 연령대의 자영업자 비중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0~50대 자영업자 비중이 55.3%에서 52.5%로 -2.8%p 하락했으며 30대 이하는 16.3%에서 15.8%로 -0.5%p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2019~21년중 부산의 경우 60대 이상 고령 자영업자 비중이 2.4%p 상승하며 33.4%까지 비중이 높아졌다. 하지만 30대 이하(-0.1%p)와 40~50대(-2.4%p)는 감소했다. 경남과 울산도 60대 이상 자영업자 비중이 각각 3.9%p와 3.6%p 상승한 반면 다른 연령대는 모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사업자 연령대별 비중 변화

(%, %p)

연령대	전국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2019	2021	증감												
30대이하	16.8	16.6	-0.2	16.3	15.8	-0.5	16.6	16.5	-0.1	16.9	16.0	-0.9	15.7	14.9	-0.8
40~50대	55.5	52.9	-2.6	55.3	52.5	-2.8	52.3	49.9	-2.4	57.5	54.8	-2.7	57.7	54.6	-3.1
60대이상	27.6	30.3	2.7	28.4	31.6	3.2	31.0	33.4	2.4	25.5	29.1	3.6	26.5	30.4	3.9

주 : 14대 업종 전체 개인사업자 중 연령대별 비중
 자료 : 국세청

11) 자영업자는 관련 기관별로 목적에 따라 자영업자, 개인사업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 여러 분류로 관리. 본 장에서는 2021년 연령대별 자영업자 비중 확인이 가능한 국세청 자료(개인사업자)를 활용

12) 경제권역별 60대 이상 고령 자영업자의 지역내 비중(%), 2021년 기준
 · 동남권(31.6), 강원·제주권(30.8), 대경권(30.4), 수도권(30.1), 호남권(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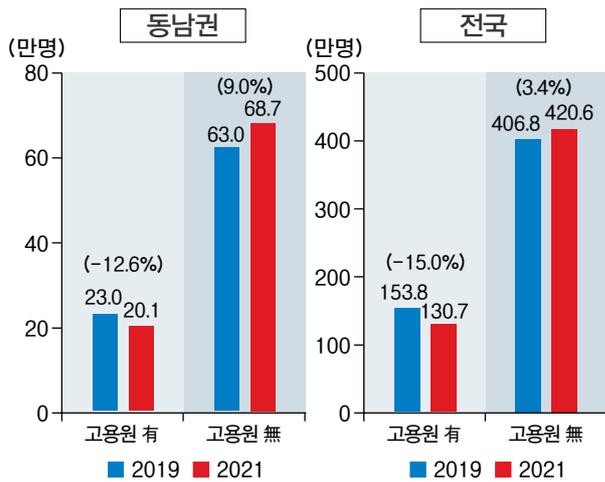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가 크게 증가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자영업자 증가세의 또다른 특징은 일반적으로 영세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빠르게 늘어났다는 것이다¹³⁾.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19~21년중 63만명에서 68만 7천명으로 9.0% 늘어났는데 이는 전국 평균 증가세(3.4%)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¹⁴⁾.

지역별로도 부산, 울산, 경남 모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과 울산의 경우 2019~21년중 각각 4만 9천명, 5천명 늘어나며 21.6%과 7.8%의 높은 증가세를 시현했다. 다만 경남의 경우 0.9% 증가하며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동남권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19~21년중 2만 9천명 감소(-12.6%)했으며 전국도 23만 1천명 감소(-15.0%)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11.2%), 울산(-16.0%), 경남(-13.3%)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감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 자영업자수



주: ()내는 2019년 대비 2021년 증가율
자료: 통계청

지역별·규모별 자영업자수 증감

(만명, %)

구분	전국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전체 자영업자	-9.3 (-1.7)	2.6 (3.0)	3.5 (10.4)	0.1 (1.1)	-1.0 (-2.3)
고용원 유	-23.1 (-15.0)	-2.9 (-12.6)	-1.2 (-11.2)	-0.4 (-16.0)	-1.3 (-13.3)
고용원 무	13.8 (3.4)	5.7 (9.0)	4.9 (21.6)	0.5 (7.8)	0.3 (0.9)

주: 2019년 대비 2021년 증감, ()내는 증가율
자료: 통계청

13)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월평균 매출액(621만원, 2019년 기준)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2,936만원) 대비 21%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일반적으로 영세 자영업자로 분류(한국은행 조사 결과)

14) 2019~21년중 전체 자영업자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동남권은 4.1%p(73.3% → 77.4%) 확대되며 전국의 비중 확대폭 3.7%p(72.6% → 76.3%) 대비 높은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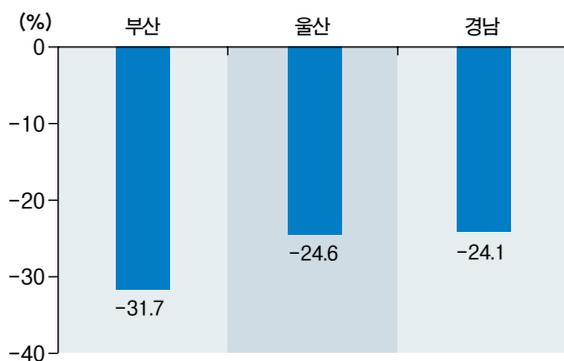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자영업 체감경기 크게 악화

코로나19 이후 동남권은 자영업자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자영업 체감경기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동남권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¹⁵⁾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26.8%의 감소율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¹⁶⁾. 지역별로도 부산(-31.7%), 울산(-24.6%), 경남(-24.1%) 모두 크게 낮아졌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대면 서비스업 관련 자영업자의 피해는 더욱 큰 것으로 파악된다. 2019~21년중 대면 서비스업 중심인 숙박음식점업과 여가서비스업¹⁷⁾의 동남권 생산지수¹⁸⁾는 각각 -19.2%, -24.1% 감소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서비스업 전체 생산지수(-0.4%) 대비 매우 큰 감소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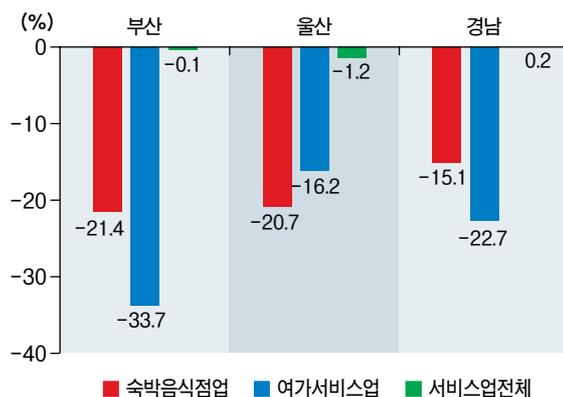
지역별로는 2019~21년중 부산, 울산, 경남 모두 전체 서비스업 생산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대면서비스업 생산은 급감했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부산은 -21.4% 하락했으며 울산과 경남은 각각 -20.7%, -15.1% 줄어들었다. 여가서비스업도 부산(-33.7%)의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다음은 경남(-22.7%), 울산(-16.2%)으로 조사됐다.

시도별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증가율



주 : 2019년 대비 2021년 증가율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도별 대면서비스업 생산지수 증가율



주 : 2019년 대비 2021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15) 부산, 울산, 경남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의 단순평균으로 계산

16) 같은기간 전국의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26.1% 감소한 것으로 조사

17) 여가서비스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노래 연습장 운영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당구장 운영업 등 자영업자가 많은 업종을 포함

18) 부산, 울산, 경남 생산지수의 단순평균으로 계산

자영업 침체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부정적 영향

자영업 침체는 지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 상가 공실률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 13.1%에서 코로나19 이후인 2021년 4분기에는 16.4%까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같은기간 동남권 공실률 상승폭은 3.3%p에 달하며 전국(2.2%p) 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울산의 공실률이 2019년 4분기 17.0%에서 2021년 4분기 21.4%로 오름폭(4.4%p)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11.3%에서 15.0%로 3.5%p 높아졌으며, 경남은 13.5%에서 16.0%로 2.5%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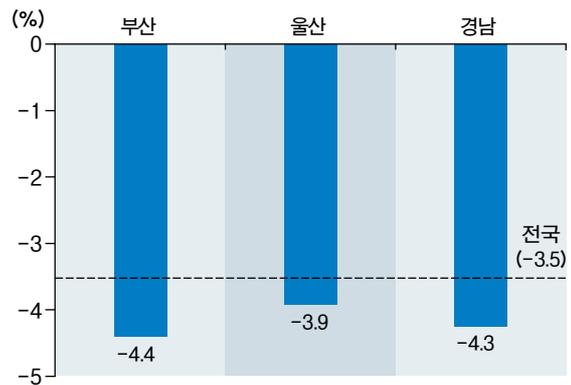
공실률 상승 등의 부정적 영향으로 동남권 전지역의 상가 임대가격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부산의 상가 임대가격지수의 경우 2019년 대비 -4.4% 감소하며 동남권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경남(-4.3%)과 울산(-3.9%)도 전국(-3.5%)에 비해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권 상가 공실률



주 : 중대형 상가 기준
자료 : 한국부동산원

동남권 상가 임대가격지수 증가율



주 : 1) 2019년 대비 2021년 증가율
2) 중대형 상가 기준
자료 : 한국부동산원

자영업 활력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및 지원 노력 중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지역관광 활성화 등으로 대면 서비스 업을 중심으로 자영업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동남권 숙박음식점업 카드 사용액도 지난해 4분기에 이어 금년 1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17.9%의 증가세를 이어나간 것으로 나타났다¹⁹⁾.

정부 및 지자체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만큼 회복 속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에서도 부산지방세무사회·부산일보·니더·부산은행이 협력하여 「자영업 희망가득 하이(HIGH)」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창원시·경남은행도 「소상공인 희망나눔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등 적극 힘을 보태고 있다.

다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및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가부담 확대 등 불확실성이 적지 않은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동남권 자영업이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시민, 민간기업 등의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노력이 중요한 시기이다.

동남권 숙박음식점업 카드사용 증가율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동남권 지자체 자영업자 대상 지원 사업

구분	사업명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마케팅 지원 경영개선 교육 및 컨설팅 소상공인 재기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운영 창업·경영 아카데미 운영 및 맞춤형 컨설팅 경영환경 개선 및 온라인 플랫폼 지원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민 무료 창업 강좌 개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자료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19) 2019~21년중 사업체수가 감소했던 여행사, 화장품가게, 스포츠용품점 등 주요 생활업종 사업체수는 대면활동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금년 1분기에는 증가세로 전환되는 모습

업종	2019~21년중 사업체수 연평균 증가율(%)	2022년 1분기 사업체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여행사	-3.4	2.8
화장품가게	-0.3	5.0
스포츠용품점	-0.7	3.3

[참고문헌]

한국은행, “온라인쇼핑 성장이 지역 소매업에 미치는 영향,” 2020.1
 _____, “부산·울산지역 자영업 주요 특징과 코로나19 이후 동향,” 2022.3
 국세청, tasis.nt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biz.or.kr
 통계청, www.kosis.kr
 한국부동산원, www.reb.or.kr

BNK경제인사이트 발간목록

2018

01	동남권 수출과 지역경제
02	동남권 자동차 부품산업 동향과 전망
03	동남권 부동산 시장 점검
04	동남권 서비스업 고용 변화
05	동남권 뿌리산업 현황 및 시사점
06	동남권 100대 기업 변화
07	동남권 기계산업 현황 및 전망
08	동남권 철강산업 현황 및 시사점
09	최근 10년간 지역금융시장 변화 분석
10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11	2019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8년 동남권 경제

2019

01	G2경제 진단 및 시사점
02	동남권 건설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자영업 현황 및 시사점
04	사물인터넷 산업현황과 동남권 발전과제
05	동남권 산업단지 현황 및 발전 방안
06	동남권 강소기업 특징 및 시사점
07	2019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동남권의 일본 수출입 현황 및 시사점
09	동남권 소비동향 및 시사점
10	동남권의 아세안 교류 현황 및 발전과제
11	2020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9년 동남권 경제

2020

01	2020년 동남권 수출 여건 점검
02	동남권 관광산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주요 상권의 변화 분석
04	동남권 제조업 현황 진단
05	동남권 경공업 동향 및 시사점
06	동남권 고용구조 변화와 향후 과제
07	2020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뿌리산업 개편과 동남권 발전과제
09	동남권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10	동남권 기계산업 동향 및 시사점
11	2021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20년 동남권 경제

2021

01	2021년 동남권 수출 전망
02	동남권 신공항과 지역경제의 미래
03	글로벌 해운시장 전망과 시사점
04	환경규제가 동남권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05	동남권 자동차산업 동향과 발전과제
06	ESG 전환과 동남권 대응과제
07	2021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수소경제의 미래와 동남권 대응과제
09	조선산업 동향과 지역경제 시사점
10	동남권 석유화학산업 현황 및 전망
11	2022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21년 동남권 경제

2022

01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수출 변화 분석
02	동남권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
03	동남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발전과제
04	원자재 시장 동향과 지역경제 시사점
05	코로나19 이후 동남권 자영업 변화 특징

E 이로운
S 세상을
G 그린다

BNK금융그룹은 ESG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다음 세상을 그려가겠습니다!

BNK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피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신용정보 BNK 시스템 BNK 벤처투자 BNK 씬농구단

BNK BNK금융지주

제2022-5호

신고번호 부산남, 라00006

신고일자 2016년 10월 14일

발행인 김지완

편집인 김성주

발행처 BNK금융지주 (www.bnkfg.com)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연락처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인쇄 애드벤처

2022년 5월 31일 발행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